

## 설국의 미인 숲: 비진바야시

사토야마 과학관 에치고 마쓰노야마 '숲의 학교' 교로로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수령 약 100 년의 길고 가는 너도밤나무가 3,000 여 그루 가까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숲이 있습니다. 이 신비로운 풍경은 '비진바야시'(미인의 숲)라고 불리는데, 수십 년 동안 사진가와 자연애호가들에게 사랑 받아 왔습니다.

일본 너도밤나무(학명: *Fagus crenata*)는 시원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고산식물입니다. 혼슈 중앙부에서는 해발 1,000m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목입니다. 이 나무는 5~7 년마다 많은 열매(너도밤나무 열매)를 맺지만, 발아한 씨앗 대부분이 큰 나무들 그늘 아래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. 그렇다면 해발 고도가 불과 300m 정도인 이 산 중턱에는 왜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이 생긴 너도밤나무가 밀집해 생육하고 있는 것일까요? 도카마치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답은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비진바야시의 너도밤나무가 이 낮은 해발고도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도카마치의 긴 겨울과 많은 눈이 고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또 눈은 경쟁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편, 가을에 떨어진 너도밤나무 종자를 봄이 될 때까지 축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배고픈 다람쥐나 쥐로부터 보호합니다.

비진바야시의 너도밤나무들이 유독 곧고 가느다란 이유는 이곳의 독특한 역사에 기인합니다. 원래 이 지역은 다양한 크기와 수령의 너도밤나무들이 자라는 자연림이었습니다. 1910 년대에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도쿄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. 그는 성목을 모두 베어 숲으로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. 이듬해 봄, 남은 묘목들에게는 햇빛을 서로 쬐겠다고 다툼 경쟁상대가 없어졌습니다. 주위에 키 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어린나무는 옆으로 커지거나 가지를 뻗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나무들은 곧게 성장했고, 버드나무처럼 모두 함께 태양을 향해 뻗어갔습니다. 주민들은 이 숲에 매료되어 이 아름다운 숲을 보존해 왔습니다.

비진바야시에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기 전에 땅에서 비스듬히 자라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. 눈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현상은 '네마가리'라고 합니다. 매년 겨울이 되면 아직 유연한 어린나무에 무거운 눈이 쌓이면서 그 무게로 인해 나무가 휘게 됩니다. 눈이 녹으면 나무는 다시 위로 자라려 하는데, 이러한 사이클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면 나무 줄기 일부에 J자형 곡선이 형성되게 됩니다. 전통적으로 지역 목재 장인들은 이 굽은 목재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곡선의 강도를 살린 지붕의 대들보나 눈 도구를 제작해 왔습니다.

비진바야시 나무그늘 산책로는 3ha(헥타르)에 달하는 숲을 한 바퀴 둘러볼 수

있게 되어 더운 계절에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. 겨울에는 풀이 적고 눈으로 덮인 경치가 펼쳐지기 때문에 스노슈잉의 인기 명소이기도 합니다.